‘불교 대법회’ 본격화…“국민 평안 앞장”

봉행위원회, 7월 27일 첫 회의 개최해
‘K-선명상’ 선포…간화선 대중화 초석
진우 스님 “국민 공감하는 대법회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국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전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2024 불교도 대법회’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도 대법회 봉행위원들에게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대법회가 되도록 다 함께 역량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4 불교도 대법회 봉행위원회(봉행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봉행위)는 7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첫 확대회의를 열고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도가 모일 땐 좋지 않은 주변 상황이나 종단 내 상황에 따라 항의 또는 궐기 형태가 많았다. 그렇기에 국민에게도 편치 않은 시각이 있었다”며 “불교가 가진 장엄하고 거룩한 전통 의식을 여법하게 보여준다면 오해를 불식시키고, 훨씬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고유한 불교 의식을 선보이면서도 그 속에 대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만명의 불자가 동시에 수계하는 법회에선 생명을 죽이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의 계를 기본으로 삼아 대 국민적 운동을 펼치고, 600명의 스님이 함께 공양받는 법회에선 어른에 대한 공경, 스승에 대한 존경, 부모님에 대한 효도 등 존중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또 진우 스님은 불교도 대법회가 조계종의 종지를 구현하는 간화선을 더욱 견고히 하는 단계라고 역설했다. 스님은 “간화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긴 쉽지 않다. 명상으로 준비하고, 점차 명상의 단계를 높여가면 그 최정점에는 간화선이 있다”며 “K-선명상은 그 최정점인 간화선을 정복하는 그 지점까지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은 ‘K-선명상’을 선포하는 날이다. 조계종이 불교 장자종단으로써 국민 마음을 평안히 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2024 불교도 대법회-마음의 평화,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 선명상 대회’ 주요 행사 기본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4년 불교도 대법회’는 9월 23~2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증명하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봉행위원장을 맡는다. 주요행사로 △전통문화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수계법회, 승보공양 등 전통문화 재현 △2024 국제 선명상 대회 △국민음악회가 있다.

전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연합수계법회도 열린다.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전계사로 원로의원이 지도위원으로 나선다. 교구본사와 계층별 수계대상자 등 약 3만명이 수계법회에 동참한다.

수계법회 후에는 원로위원, 본사주지, 종회의원, 각급 종정기관 위원 등 600명을 대상으로 승보공양 법회가 봉행된다.

‘2024 불교도 대법회’의 하이라이트인 ‘2024 국제 선명상 대회’는 9월 28이 오후 5시부터 광화문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대회로 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주재 하에 해외 명상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선명상 실참이 준비됐다. 우파야 젠 센터 주지 로시 조한 핼리팩스, 달리이라마 영어 통역 전담 툽텐 진파, 전 구글 소프트엔지니어 차드 멩 탄, 잡지 ‘마인드풀니스 인 벨’ 편집장 팝루 스님, 수행안거센터 운영자 직메 린포체 등이 동참한다.

국제 선명상 대회는 30일까지 서울 봉은사, 경기 봉선사, 한국문화연수원, 서울 홍대선원, 부산 쿠무다, 계룡 홍제사 등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며 10월 1일 국제 컨퍼런스 이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날 ‘2024 불교도 대법회’의 발전 방안 모색하는 논의도 진행됐다. 총무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은 “전통문화 재현 행사에 법음, 범패, 작법 의식이 더해지면 1300년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의 신비스러운 면모를 더욱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어떻게 하면 소리, 범패, 악기, 사물이 조화를 이뤄낼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불자회 제3회 회장 취임식에는 각계 각층에서 100여 명이 동참했다. 사진=김민재 수습기자

홍철호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 “불교와 동행”

7월 24일 조계사서 취임법회 봉행
“공명정대, 공평무사한 자세” 약속
진우 스님 “마음 꾸준히 돌보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불자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홍철호 신임 회장은 ‘부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나라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실불자회는 7월 24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대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홍철호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들을 살피는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3기 대통령실 불자회가 시작되는 오늘, 불자회 또한 그 뜻을 받아 불교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회장은 불자 기업인 봉사단체 ‘보현선행회’ 활동, 3000배 정진법회 참석 등 자신의 신행담을 이야기한 뒤 “부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과 국민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대통령실 업무가 과중한 만큼 직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또한 강도가 높을 것”이라며 “바쁨을 핑계로 마음을 내버려두지 말고 꾸준히 돌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정진은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으로 회향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리이타의 실현”이라며 “홍철호 회장과 대통령실 불자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정진해 부처님 자비를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9월 진행될 국제 선명상 대회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K-선명상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불자회는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을 향한 소중한 인연으로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한 헌신을 약속했다. 이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으며 ‘국태민안, 국민행복’이라는 대통령실 불자회의 목표를 다시 되새기겠다”며 “공무를 성실히 수행해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발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원했다.

홍철호 회장은 취임식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620만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우 스님 “선명상으로 감정 덩어리 컨트롤을”

7월 20일 한국명상지도자포럼서 강조해
‘선명상 대중화’ 법문…회원들 동참 권선



“선명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평안함을 줄 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7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한 제5차 한국명상지도자포럼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마음 문제 해결을 위한 선명상을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사진〉

‘명상의 대중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특별 초청 강연자로 나선 진우 스님은 이날 ‘선명상 대중화’에 대해 법문했다. 진우 스님은 “물질만능주의 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을 스스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선명상 홍포에 직접 뛰어들었다”면서 “선명상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정부와 협의, 전국에 선명상센터를 만들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문에서 진우 스님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도래하는 등 급진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있지만 우리는 괴로움을 떨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을 때가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며 “연기법을 통해 제대로 관할 때, 모든 것이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제거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관해 감정 덩어리를 컨트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스님은 “회원들은 굉장한 자산이다. 전문가들로서 선명상 보급의 일원이 돼달라”면서 “선명상이 잘 홍포돼 국민들 마음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이헌승 정각회장에 화합 정치 당부

7월 23일 “국민 행복 프로젝트에 관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에게 화합의 정치를 통한 상생 사회 구현을 당부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7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헌승 정각회장의 예방을 받고 “국회의원들이 잘 화합하는 정치로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면서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행복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22대 국회 정각회원이 역대 최다 56명이라고 소개한 뒤 “화합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각회 내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부처님 가피 속에 한마음 한 뜻으로 의정활동 하고, 난관에 봉착하면 원장스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이헌승 회장의 정각회장 취임법회는 9월 2일 오전 11시 국회 정각선원에서 봉행된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